

벌써 관람객 30만... '열풍' 분다



예술영화들의 작은 반란

허련 고손자 허진·오지호 손자 오병재씨 화업 이어가는 후손들

서울서 나란히 전시회

호남의 동·서양화단을 이끌었던 선조의 맥을 이어가면서도 독자적인 화풍을 추구하고 있는 허진(44) 전남대 교수와 오병재(32) 씨가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호남 남종화의 시조인 소치 허련(1808~1893)과 근대 서양화가 오지호(1905~1982)의 화업을 이어받은 후손들이다.

서울 서초동 갤러리 우덕에서 오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인전을 갖는 허진 교수의 고손자 허진이면서 남종 허련의 장손이다.

그는 정처 없이 떠도는 현대인의 몸타주들을 동물과 결합시켜 인간성 회복을 외치는 한국화를 전시한다.

호남 화단의 대표적인 서양 화가이자 근대 서양화의 주요 작가인 오지호의 손자 오병재씨는 서울 사간동 금호미술관에서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My Everyday'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오지호의 차남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지난 1월 안타깝게 타계하고 오승운 화백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기하학적인 구도의 화면을 통해 모험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허진 작 '유목동물+인간'

광주비엔날레 개막 한 달 열풍변곡

'열풍변곡(Fever Variations)'을 주제로 지난달 막을 올린 2006광주비엔날레가 8일로 개막 한 달째를 맞았다.

'아시아의 시각'으로 세계 현대미술을 조명, 재해석하기 위해 '아시아'를 전시의 기본축으로 정한 이번 비엔날레는 현대미술과 관람객들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체 참여 작가 127명 가운데 아시아 작가 57명이 참가해 아시아의 보편적인 정서와 소재를 채택한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현대 미술을 친근하게 느끼게 함과 동시에 아시아를 바탕으로 현대미술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관람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8일 현재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은 모두 27만8천853명으로, 1일 평균 9천295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5회 대회 같은 기간 20만7천174명보다 7만1천여 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본 전시와 함께 진행된 '제3섹터 프로그램 : 140만의 불꽃'은 축제형식의 공연에서 탈피, 관람객들이 문화를 즐기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광주별곡'은 광주시민들을 미술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꾸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광주비엔날레가 전체적인 운영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행사의 핵심인 전시 구성면에서는 장설 11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엔날레 재단은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반미(反美)성향의 작품을 전시한 남미섹션(5



광주비엔날레가 개막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8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전문문화연구회 '열풍'의 퓨전타악 공연을 즐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시아성' 중심 기획·참여프로그램 호응... 관람객 늘어 일부 관람동선 수정·비문화적 관람태도 행사에 흠집

전시관의 입장객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관람동선을 바꿔 빈축을 산 것이다.

관객들이 작품을 훼손하는 등 비문화적인 관람태도가 여전한 것도 행사에 흠집을 남겼다. 개막 4일째를 맞은 지난달 11일 무려 15개의 작품이 파손됐고 일부 설치 작품이 도난 당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여기에서 주최측이 단체 관람객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무더기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바람에 전시는 성황을 이뤘지만 정작 관람객들은 인파에 떠밀리다시피 작품을 관람하는 등 관람 문화의 질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미술오케스트라(시립미술관), 동아시아의 색채전(국립광주박물관) 등 동반전시로 이끌지 못한 것도 향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홍희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은 "애초 기획의도 대로 '아시아성'을 바탕으로 한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큰 반향을 얻은 데다 커다란 과오 없이 행사가 진행돼 무엇보다 감사하다"며 "학생 관람객들이 비엔날레를 많이 찾는 만큼 이들이 현대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황승욱 가야금 병창 무대 11일 광주문화예회관

취선 황승욱(강진 성화대 교수·사진) 제11회 가야금 병창 독주회가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안숙선·박귀희 선생을 사사한 황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판소리 '수궁가'와 '춘향가', 단가 '명기명창'과 '백발가'를 들려주며 '나의 기도' '사랑의 예수' 등 성가도 연주한다.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이수자인 황



씨는 전주대사습에서 장원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전통음악보존회 이사장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KT

메가팩스 일반전화

080-062-0100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일 판매

1. 100% 보증, 100% 환불

2. 100% 보증, 100% 환불

3. 100% 보증, 100% 환불

수표

7시~24시

652-7544

SONY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자동차

신차

중고차

자동차

신차

중고차

자동차

신차

중고차

자동차

신차

중고차